

예술로 가는 책

「조형 작품의 가치」 날로 부각...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뉴미디어와 영상의 급진적인 발달과 확산으로 책은 빈사지경에 처했다. '종이책이 사라지다니...'. 책을 쓰고 책을 만들고 책을 파는 것으로 밥을 먹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책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기도 했다. 오늘날 대량생산으로 인해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책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반면, 단시간에 폐기처분하고 새 책을 구입하기도 한다. 대량공급을 위한 기계 제본, 산성 종이와 값싼 재료의 사용으로 책은 질적 저하를 가져왔고, 결국 책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소모품화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책의 위기는 동시에 책이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며 “자신의 영토 일부를 뉴미디어와 영상에 내주는 했지만 ‘과연 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19세기 이전의 책은 '공예품이자 예술품'

책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글자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엮어낸 것으로 인류는 이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후대로 이어왔다. 하지만 책은 오늘날처럼 대중적인 매체는 아니었다. 활판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책은 하나의 공예품이자 예술품이었다. '눈으로 보는 시'라 일컫는 이집트의 상형문자, 아라베스크 무늬의 기본이 된 아라비아 문자의 장식미, 그리고 태생이자 그림문자인 한자에 이르기까지 문자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스럽고 고귀한 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책' 이어야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준모 학예연구실장은 “하지만 이런 책의 호사는 '호사'가 아닌 책에 대한 '경의'와 '존경'의 표시였다”고 풀이한다. 어느 문명권보다

도 장식미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유럽은 중세의 사본시대부터 지금까지 호화롭고 아름다운 책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 고려시대의 '대방광불화엄경'이나 조선시대의 '가례도감의궤' 같은 채색본은 유럽의 어느 것과 견주어도 그 아름다움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책은 백자나 청자의 그윽하고 은은한 멋스러움을 닮아 호화미장본보다는 흑백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책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미술과의 만남과 인쇄술 발달로 획기적 변화

하지만 활판인쇄술이 발달하고 소설이라는 장르가 생기면서 값싸고 재미있어진 책은 빠른 속도로 대중들에게 퍼져나갔다.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의 권좌에서 내려온 책은 사회변혁의 촉매가 되는 등 근대의 꽃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19세기에서 가장 대중적인 매체가 된 책은 다시 20세기 초반 미술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전통적인 조형적 태도와 미학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일군의 실험적인 미술가들에 의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게 된다. 즉 단순한 사전적 의미의 책으로부터 하나의 조형단위로, 그리고 조형작품으로서 가치를 갖는 완성된 독자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특히 이러한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들의 혁신적이고 과격했던 이념은 타이포그래피로 구현되기도 했다. 이는 현대미술과 시, 그리고 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시기의 디자인, 즉 요즘의 그래픽디자인은 입체파 화가들과 미래파 시인들의 충동과 다다이스트들의 실험에 의해 탄생되었다.

정준모 실장은 관련 저술을 통해 “그들은 수평과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던 문자 디자인으로서의

원칙을 깨버리고 대량인쇄 또는 복제를 위해 단어와 활자체를 적당한 곳에 붙임으로써 이루어진 대각선 등을 이용, 동적이고 비선적인 구성으로 지면에 시각적인 힘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파악했다. 즉 문자에 역동성을 부여함으로써 문자로서의 형식과 의미하는 내용의 통일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문자라는 경직된 약속이 형태를 깨고 지루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유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형태 속에 생명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에 따른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책의 본성’에 주목하는 디자인해야

책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한국의 미서, 즉 아름다운 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로 이어지면서 신분상승 욕구가 강한 한국인들의 책에 대한 경의로 나타났다. 특히 일제 강점기부터 1950년대에 걸쳐 김용준, 정현웅, 이중섭, 한묵, 박고석, 최재덕 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장정에 참여한 한국의 근대도서관은 아트 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해 준다.

한편 책을 소재 또는 주제로 작업해 온 김상구, 고영훈 등등의 미술가들의 작품, 1970년대 들어서면서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보고 읽는 조형적 수단으로서 책에 의미를 두고 작업해 온 서기훈, 정병규, 안상수, 금누리 등의 작업은 시대와 미감에 따라 변화하는 책의 의미와 기능을 만나게 된다.

“지금에 와서 책이 변화해야 한다면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 오랜 시간 서서히 변질되고 간과되었던 책의 ‘물성’에 대한 본래의 배려를 다시금 찾아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이 ‘아트 북’이든 ‘북 아트’이든 디자이너의 ‘아트 북 아트’에 대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이 지닌 ‘물성’을 극대화하여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

이다. 소수를 위한 배타적인 책보다는 대중을 위한 책으로서의 아트 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관심 자체를 상업적 출판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접점에 놓인 것이 바로 디자이너가 더 관심을 갖는 ‘책’에 관한 역할일 것이다.”(이나미 <‘소유하고 싶은 책’을 위한 디자인> 중에서)

특히 핸드메이드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아트북은 출판사 혹은 전문가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것도 특징이다. 최근에는 DIY(Do it yourself)의 연장선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책 만들기’(www.handmadebook.cyworld.com) 동호회, 김진섭 씨가 운영하는 ‘책공방 아트센터’(www.bookworks.co.kr), 백순덕 씨가 운영하는 ‘렉토베르소’(www.rectoverso.co.kr 예술제본장정), 임현우 씨가 운영하는 ‘아트북 프로젝트’(www.artbookproject.com) 등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들 동호회나 공방에서는 세상에서 단 한 권만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책이 대접 받고 호사를 누린다. 책은 그 컨셉트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넓기 때문에 누구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책을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감촉과 향기, 느낌으로 읽고 싶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책의 위기가 책의 본성을 찾아준 셈이다. ■

신동섭 기자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rt Book Art》(중앙M&B)에 실린 정준모 씨의 ‘책, 책으로서의 예술, 예술로서의 책 과 ‘예술에서의 북 아트’ 등을 인용한 것입니다.

소수를 위한 배타적인 책보다는 대중을 위한 책으로서의
아트 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관심 자체를 상업적 출판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접점에 놓인 것이
바로 디자이너가 더 관심을 갖는
‘책’에 관한 역할일 것이다.